"본래 자기의 눈을 뜨고 있어라"

㊳ 주인공

'주인공'은 흔히 소설이나 연극 · 영화 등에서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을 가리킵니다. 또는 어떤 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핵심이 되는 인물,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위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여간해서 잘 죽지 않습니다. 곧 죽을 듯하면서도 끝내 살아서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비록 픽션이지만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 나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주인공이 죽는 영화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의 마음입니다만 주인공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영화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허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禪)에서 주인공이라는 말은 많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선에서 주인공이란 영화나 연극에서 주인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 자기'를 가리킵니다. 옷을 입은 형상적 자기가 아닌, 화장을 짙게 한 가식적 자기가 아닌, 그 형상과 육체를 지배하는 '본래적 자기'를 가리킵니다.

주인공을 요즘 말로 정의한다면 아마 '자기 자신의 실체' 또는 '자신의 주재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존재' 또는 '항상 자신의 행위를 관찰, 컨트롤(주재)하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힌두이즘에서 말하고 있는 윤회의 주체자인 아트만이나 영혼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전생과 내생 그리고 금생을 오가면서 한 인간의 생을 좌지우지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영혼이나 아트만 또는 그 일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공이란 '사물을 보고 듣고 지각할 줄 아는 존재' 즉 '마음'을 가리킵니다. 영혼이 아닌 마음을 가리킵니다.

주인공과 관련한 재미나는 고사가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말 서암사에 사언(師彦, 생몰연대 미상) 화상이라는 선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큰 소리로 "주인공아!" 하고 부른 다음 스스로 "예!" 하고 대답하고는 "눈을 떠라, 깨어 있는가?" 하고 물은 다음 스스로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또 "어느 날 어느 때도 남에게 속지 말라!" 하고는 스스로 "예! 예!" 하고 자문자답했다고 합니다.

사언 화상의 행동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주재자 즉 주인공을 항상 불러서 부단히 스스로를 각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눈을 뜨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고 해 안일과 무감각, 방일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각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물에 물탄 듯 흐리멍텅한 상태로 앉아 있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좌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면 그 편안함 즉 안일에 빠집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이건 학자건 사업가건 좀 편안하다고 해 그 자리에서 안주하면 그 자리가 바로 그 사람의 무덤이 됩니다. 그러므로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해야 합니다. 깨달음도 그 자리에 안주하면 집착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느 날 어느 때도 남에게 속지 말라"는 말은 '자기의 눈(안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만 추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저것이 깨달음이다'라는 말에 속지 말고 정법을 바로 볼 수 있는 눈, 즉 안목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것은 절대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의 말만 듣다 보면 일평생 허둥대다가 끝나게 됩니다. 다행히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함께 수렁으로 빠집니다. 그러므로 참고는 하되 지나치게 추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속지 말라'는 말에는 언어의 화려함이나 문자의 화려함에 속지 말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언어나 문자로 기록된 글 속에는 일정 부분 과장이 들어가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한문은 기본적으로 과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사언 선사는 이와 같이 항상 큰 소리로 '자기 자신의 주인공'을 불러서 스스로 안일로부터, 주변의 유혹으로부터 방치되는 일 없이 평상심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불교나 선을 모르더라도 가끔 거울을 보면서 무심코 "너(주인공)는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또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하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거울에 나타난 자기는 '감성적 자기'이고, 묻고 있는 존재는 '이성적 자기'로서 그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주인공을 잘 활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때는 가슴이 떨립니다. 두근두근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차분하게 마음속으로 "주인공" 하고 부른 다음 "절대 허둥대지 말고 침착하게!"라고 말을 건네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진정되어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물을 보고 듣고 지각할 줄 아는 마음이 '주인공'
깨달음도 안주하면 집착 … 주인공 불러 평상심 유지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중생 향하는 모성애가 지장보살 성품

㊳광목

<지장경>에는 지장보살의 전생담이 남성으로 2번, 여성으로 2번 모두 4번 등장한다. 그중 여성으로 묘사된 전생담은 아주 구체적이고 극적이다. 남성으로 태어난 전생담이 "전생에 왕자나 왕의 신분으로 원력을 세웠다"는 식으로 간략하게 기록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자세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아마도 지장보살과 같은 큰 원력은 자비롭고 헌신적인 여인들의 성품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리라.

<지장경>에 묘사된 지장보살의 첫 번째 전생 여인은 과거 아승지겁 전 각화정자재왕여래 시대에 한 바라문의 딸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평소 갖은 악행으로 지옥에 떨어졌는데, 이 여인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 각화정자재왕여래 앞에 공양을 올렸다. 그는 지옥의 무독귀왕으로부터 자신의 기도로 그의 어머니 뿐만 아니라 함께 지옥에 떨어졌던 사람들까지 모두 구제됐다는 말을 듣고 큰 원력을 발했다. 그리하여 그는 죄를 지어 고통받는 중생이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성불하지 않는 보살로 남은 것이다.

지장보살의 두 번째 전생 여인은 무량 아승지겁 전 청정연화목여래 시대에 광목(光目)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다. 광목의 어머니 역시 살아생전에 물고기와 자라새끼를 많이 죽이고 먹은 과보로 지옥에 떨어져 고통 받고 있었다. 광목은 그의 어머니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광목의 어머니를 지옥에서는 구제해주셨으나 수명이 매우 짧은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종으로 태어난 그의 어머니가 지옥의 과보가 매우 괴로웠음을 이야기하자, 광목은 큰 서원을 발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백천만겁 동안 지옥과 삼악도의 모든 죄고(罪苦) 중생들을 제도하고 그들이 성불한 연후에야 비로소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이러한 큰 서원으로 광목은 후에 지장보살이 됐고, 그의 어머니도 해탈보살이 됐다.

이와 같이 <지장경>을 보면, 여인이었던 광목과 바라문의 딸이 지극한 공양을 통해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하고 지장보살의 서원을 발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공양이 그토록 거룩한 과보를 낳는 수행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불공양(諸佛供養)이 중생공양(衆生供養)이요, 중생공양이 제불공양이라. 능히 중생을 수순(隨順)함이 곧 모든 부처님을 수순하며 공양함이 되고, 중생을 존중히 받들어 섬기면 곧 여래를 받들어 섬김이 되며,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심이 나게 하면 곧 일체 여래로 하여금 환희하시게 함이니라."(<화엄경> '보현행원품')

참된 예배와 공양의 공덕은 일체중생을 부처님으로 보는 눈을 갖추는 것이다. 미운 사람, 잘못한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아직 공부가 부족한 증거이다. 동료와 이웃, 남편과 아내를 불 · 보살로 볼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예배가 된다. 얼굴에 짜증 안 내는 것, 입으로 악담하지 않는 것이 돈 안 들이고 불공하는 것이다. 입으로 남을 찬탄하거나 미소 짓는 것은 마치 묘한 향을 토해내는 것과도 같다. 스스로의 아만을 꺾고 인욕 · 하심하며 남을 공경하는 공부를 지속하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가 보살이 되어 있을 것이다.

광목의 보살도(菩薩道) 수행을 보면, 자비심과 원력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 수 있다.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은 실제로 보살행을 거듭해 위대한 지장보살이 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여성의 성품, 특히 모성애는 한량없는 자비심과 동일시되니 이것이 곧 부처의 성품과 다름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추운 겨울, 떨고 있는 거지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땅으로 몸을 숨겼다는 지장보살. 만 중생을 포용하는 그런 헌신적인 성품이 자신의 자식뿐만 아니라 만 중생에게 향하는 것이 곧 지장보살의 성품이고 원력인 것이다.

"나와 더불어 널리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간경, 참선, 염불, 위빠사나 등 다양한 수행이 사홍서원, 법장 비구의 48대원과 보현보살의 10대 행원, 지장보살의 대원(大願) 등 발원과 연계될 때 정진과 보살행은 비로소 조화롭게 이어질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만 중생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 떠나라"하셨듯이, 대승보살이라면 바라밀행 가운데 여래의 길이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지장보살의 전생 여인, 어머니 구하려 공양
예배·공양 공덕은 일체중생 부처님으로 보는 것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지장에서 미륵까지' 템플스테이=**호남불교문화원은 10월 10~12일 '지장에서 미륵까지'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김제 금산사와 고창 선운사를 순례하고 주지 원행 스님과 차담을 나눈다. 새벽에는 심원암, 도솔암 숲길을 걷는다. 참가비는 1인당 20만원이고 35명 선착순 접수한다. (062)383-3538

●**대용맹정진=**부산 해운정사는 10월 13~16일 대용맹정진을 실시한다. 참선에 뜻이 있는 누구나 참여가 능하고 동참금은 4만원이다. 16일 회향 후 재가오계 수계식이 이어진다. (051)746-2256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오대산성지 월정사에서 12월 9일까지 제19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행자를 모집한다. 2009년 1월 4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단기출가학교는 삭발염의 등 행자생활을 직접체험한다. 수행경비는 60만원. (033)332-6664

●**위빠사나 수행 기초=**한국 위빠사나 선원은 10월 15일 서울 청호불교문화원에서 수행기초과정을 개강한다. 수행 이론, 경행, 좌선, 면담 등 수행기초이론 강의와 실제수행을 병행한다. 매주 월 · 수요일 14주간 진행되며 수강료는 자율보시다. (02)512-5258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112회 3000배 용맹정진
강력한 대긍정의 밝은 기운! 찬란한 부처님 가피!
소원성취 저절로...
밤새워 정진해도 배고프지 않고, 졸립지 않으며, 힘이 솟아나는 특별한 3000배!
과학적, 의학적, 인체공학적으로 탁월한 효과가 완벽하게 증명된 세계유일의 3000배!
6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냅시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날 짜 : 2008년 10월 11일(토) 저녁 9시 ~
2008년 10월 12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신규 3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 : 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법복 · 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 2개, 위생비닐장갑 1,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 손목, 발목아프신분(팔관애원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 엉덩이, 꼬리뼈, 차가우신분(호락호락 팬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 장 소 : 법왕정사 부산 금정법당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사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신간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卍 한글 한문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겸용의식집 5권이면 염불 [한글염불 · 한문염불]에서 경전공부까지 다른책이 필요없게 만들었습니다.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한글염불(경전내용으로 조직)을 집전자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②경전의 내용으로(한글염불+한문염불)과 겸하여 조직하므로 독송 또는 읽음으로써 염불과 경전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③겸용의식집은 염불의 순서대로 조직하여 누구든지 쉽게 집전할 수 있게 하고 염불을 위주로 간편하게 편찬하여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④겸용의식집은 염불 중 '운운'을 없게하고 집전자의 작은 애로까지 배려하여 염불이 약한 집전자도 부담없게 만들었습니다.
⑤염불방법 한가지 소개한다면 ☞삼청하는 청사를(2청은 한문, 1청은 우리말) 염불한다면 염불과 경전공부를 한번에 하게 되므로 별도의 노력없이도 경전 공부와 우리말 염불을 쉽게 할 수 있게 될것을 확신합니다.
구 성
• 제1권 : 예경, 각청편 15,000원
• 제2권 : 천도, 시식편 15,000원
• 제3권 : 수계, 방생편 12,000원
• 제4권 : 장의편 12,000원
• 제5권 : 점안편 13,000원
※불서총판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각권 별도 판매합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전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농협 211012-52-203756 박명덕)
불서총판 운주사 / 법우당 및 전국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株)天星建設
석 · 납골당
석 · 굴법당 전문
석 · 납골당 조성공사
석 · 굴법당 조성공사 전문
석 · 축대 및 보수공사
석 · 저장실, 보관실(과일)
석 · 까다로운 석 · 길공사
석 파는 공사 전문 업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1구 260-1
대표직통 010-4581-4841
전 화 041)331-6863~5
팩 스 041)331-6862
핸드폰 010-4035-3354